

시선

사설

책 읽지 않는 캠퍼스,
진리에서도 멀어진다

문자가 인간의 경험지식을 후대로 전달해주며 문명 사회가 대동할 기반을 형성한 이후로, 인간 문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대부분의 정보는 기록유산의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그래서 대중에게 공식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던 19세기 이전의 모든 시대에는 읽고 쓰는 능력(文解·literacy)이 특권을 누리는 극히 일부 계층에 한정돼있었다.

읽고 쓰는 능력의 대중화는 곧 권력의 대중화가 됐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지적한 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에는 이른바 ‘출판 자본주의’의 발달과 읽고 쓰는 능력을 지닌 엘리트의 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세기 이후 이 읽고 쓰는 능력의 대중화 현상은 ‘국민’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그것에 대항하는 ‘지적 대중’도 등장시켰다.

작금에 이르러 많은 대중에게서 이 읽고 쓰는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현상은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대중은 역사상 가장 읽고 쓰는 능력이 출중한 세대다. 워낙 출중한 탓에 중요도가 높은 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정보들까지도 텍스트화해서 그것을 향유하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의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그저 ‘시대적 흐름’ 따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현실의 출판·기록문화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은 거의 모두 문자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정보들의 대한 이해가 지성에 다가가는 행위라면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계발하는 행위는 지성인을 육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인문학 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육철학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대비 거의 절반가량이나 떨어진 우리학교 학생의 독서량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물론 ‘독서량’이 곧 ‘읽는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 하루에 읽는 정보량의 총합은 월등히 높아졌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정보’냐 하는 점이다. 개인 디바이스가 발달하면서 오늘날 술한 인류 고전의 요약본을 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됐다. 그러나 검색이 사색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고전의 엡기스만을 추출하여 그것을 외우고 익히도록 하고 있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현 교육 방식은 다시 한 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을 함양하도록 인도하는 교육이다. 독서량이라는 그 수치에만 함몰되어 ‘독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던 정경대학 ‘에피스테메’ 프로그램의 실패는 오늘날 학교가 학생들의 독서라는 문제에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간결한 SNS 문장과 간편한 스낵 컬처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중요한 인류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장문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가독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현대 고등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자, 이번 재학생 독서량 조사결과가 대학에 던지는 큰 당면과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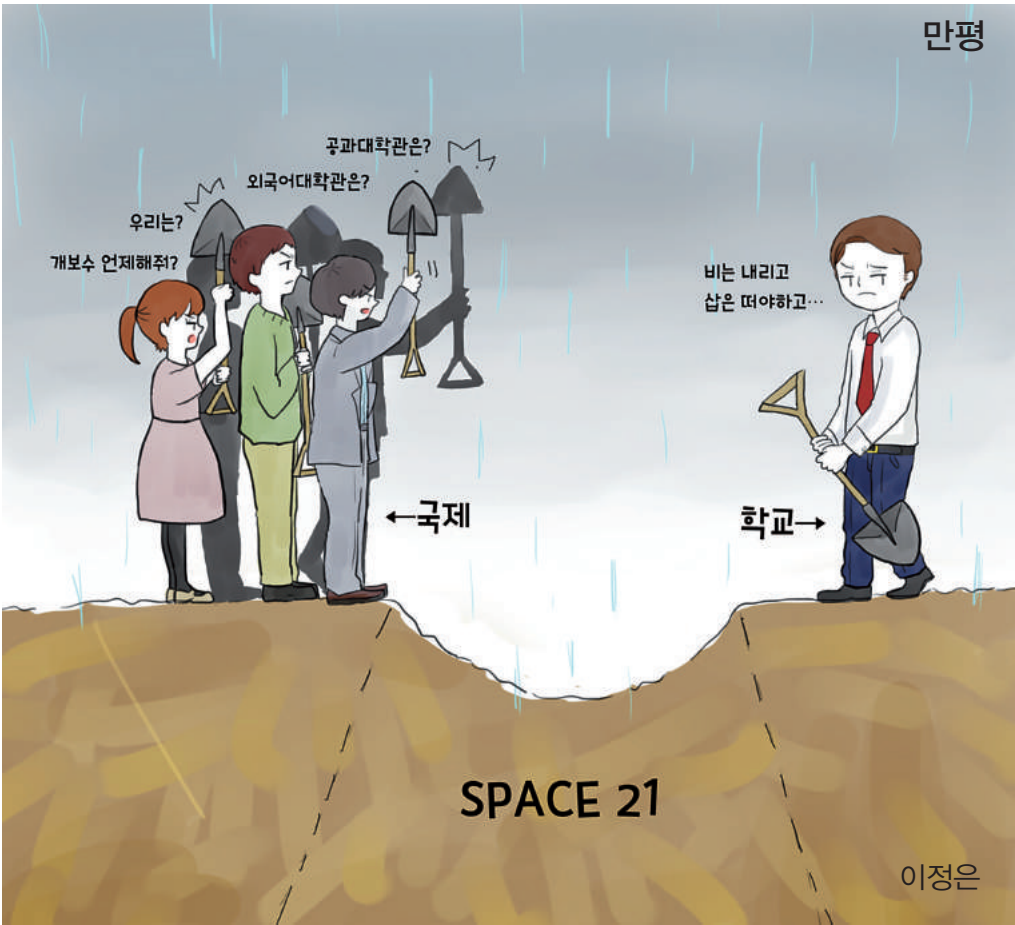
무슬림 유학생 중심으로
청운관 할랄식품 큰 호응

미디어 여론동향 2016.05.23.~2016.06.03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이번 학기부터 청운관 지하 2층 학생식당에서 무슬림 학생을 위한 할랄식품을 판매하고 있다.(학생식당 무슬림 유학생을 위한 할랄식품 메뉴 신설/대학주보 온라인, 2016.5.25)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식자재를 도살·처리·가공했음을 인증 받은 식품이다. 생협은 지난 2014년에도 할랄식품을 판매한 적 있지만 당시 미미한 반응에 중단됐다가 이후 글로벌센터의 요청에 따라 무슬림 유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학생식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할랄식품을 생산, 판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SPACE21 중간점검

SPACE21 사업, 당당할 이유가 없다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hu.ac.kr

대학은 2007년 처음 SPACE21 플랜을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작년인 2015년에 완공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완료시점이 한참 지난 지금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건물도 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과 그 낡은 건물 속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 같았던 SPACE 21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연되며 구성원들에게 ‘희망고문’ 만을 안겨주었고 이들에게 남은 것은 다가오는 졸업장 뿐이다. 정희민(지리학 2010) 군은 “내가 입학할 때 SPACE 21사업 완공 예정이 2015년 이었는데 완성은 커녕 먼저 졸업할 판”이라고 말했다. 곧 10년을 맞이하는 SPACE 21 사업은 구성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끝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학교에 최대 이슈가 되었다.

사업의 첫 삽을 뜨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한편 학교가 원하는 신축 건물의 모델까지 담기 위해 기초 작업부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끝이 없는 논의를 거쳐야 했고 이렇게 겨우 완성된 설계안이 착공을 코앞에 두고 없어지는 일도 있었다. 예산 마련에도 끝없는 잡음이 나왔다. 전체 사업 예산 중 절반에 달하는 500억 원을 기채로 마련한다는 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를 상환할 계획 역시 학교 측은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마다 학교는 ‘소통 과정에서 구성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며 사업 지연의 이유를 소통으로 돌렸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며 건설사업단에 연락을 할 때마다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통보다는 운영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양 캠퍼스의 SPACE21 사업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캠(국제캠)은 현재 종합체육관만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서울캠퍼스는 간호대와 한의대 그리고 이과대학을 건축 중이다. 국제캠에서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더욱이 국제캠 종합체육관의 경우 조속한 착공을 위해 체육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으는 등 자구책을 펼치기도 했다. 만약 체육대학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국제캠엔 종합체육관마저 착공이 불투명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국제캠 학생 여론에 불을 지폈다. 국제캠 SPACE21 사업단 측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다수의 국제캠 학생들의 의견은 이와는 다소 대조적이다. 몇 년 동안 논의를 했지만 현실은 당장 필요한 개·보수조차 언제 시행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이 어떻게 차별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만약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기자의 물음에 응답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진행상황과 정보공개 및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사업이 시작되고부터 9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학교는 구성원들과의 약속과 신뢰를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

유료 해당 공간의 대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사용 요청이 있을 때는 검토 후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 작은 감동을 주는 이들에 대한 감사가 큰 반향을 얻었다. ‘어느 날 노랑진역에서 기관사님이 “이번역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노랑진 역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했다’는 글(#경희숲_17466, 2016.6.1)은 766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고시생과 재수생을 상징하는 노랑진역, 그 단어가 주는 서글픈 감정에 대한 기관사님의 따스한 응원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글에 학생들은 ‘한 마디로 사람 울컥하게 만들 수도 있네요’, ‘노랑진 아련하다’, ‘기관사님 멋지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국제캠 정문에서 교통정리 해 주시는 아저씨 항상 친절하고 밝게 해 주셔서 멋지다’는 글(#경희숲_14762, 2016.6.1)은 58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15년째 국제캠 교통정리를 담당하고 계신 김성웅 씨입니다’라며 대학주보가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댓글에도 126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학생들은 ‘이분 경희대 무형문화제’, ‘경례도 멋있으시다’, ‘학생인 거 뻔히 알아요 다 경례해 주신다’는 의견을 남겼다.

어설픔게 수습하려 하지 말고
투명성 높일 제도 마련해야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5월 30일 서울캠퍼스 각 대자보판에는 ‘역대 문과대학 학생회장의 지속적인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합니다’라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대자보 속에서 지목된 역대 문과대학 학생회장들은 ‘그 역대 문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답합니다’라는 대자보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발 빠르게 응답했다. 구성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자칫 학생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구성원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지만 기자가 보기에 사건의 발단은 학생회비 사용이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총학생회는(총학)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자치회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제 3차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회비 회계 감사의 단계적 확대를 결의한 바 있다. 48대 총학은 이를 인수인계 받아 자치회비 사용 내역의 작성방법, 보관방법 등을 정리한 ‘표준지침’을 세웠다. 정주희(사학 2012) 총학생회장은 “자치회비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여론이 높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세칙을 넘어 회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칙은 개정되지 않았다.

기자는 6월 2일, 대자보에 등장하는 문제의 버스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 거래 시 부가세 부분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거래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임 문과대 학생회장들이 쓴 대자보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도시락 업체’, ‘새터 업체’ 등의 업체에서도 은밀한 제인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버스업체 관계자가 실제 역대 문과대 학생회장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경영대학 학생회는 스스로 ‘비영리 법인’화 할 예정이며, 방중 법민화 절차를 밟는다. 기존 개인계좌로 운영 하는 학생회와 같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가 아닌, ‘법인’과 ‘법인’의 거래로 바뀌어 운영 절차와 내용이 모두 투명해지는 효과를 가져와 이번과 같은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제일 먼저 의심되는 것이 역대 학생회장들의 청렴성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더 생각하면 경영대 학생회의 예처럼 애초에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본질적으로 문과대 학생회가 집행하는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면 발생할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학교 학생회는 최근 지속적인 자치회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과대뿐만 아니라 많은 단과대학들이 학생회 통장을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 부원의 개인계좌로 운영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은 탓이다. 논란은 문과대 학생회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단과대에서 또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다. 이번 사건으로 총학이 제시한 ‘학우 참여형 회계감사 범위 확대’가 어떻게 결론 맺을지, 경영대 학생회와 같이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의 제도를 만드는 단과대학이 이어 나올지 주목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